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탐심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하루 되세요.	탐심에 빠져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기로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탐심을 품은 적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은혜의 찬양 187장)

-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후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찬송가 270장)

-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 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리로다 하고
-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 하나는 베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 엘에서 세웠더라
-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본문 배경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 뒤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자 백성은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돌아 온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에 성을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모든 일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면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니다 보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베엘과 단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고,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함께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말씀 관찰

1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27-28절)

답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해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27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남유다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등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미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똑같은 범죄를 행한 결과 3,000여 명이 죽음에 이른 역사가 있었습니다(출 32:4-28).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2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백성과 함께 숭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29-33절)

답 예배 장소를 바꾸고,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를 변경합니다.

해설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은 백성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장소를 변경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백성의 편의를 봐주는 척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는 벧엘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두 번째로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민 3:10).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보통 백성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7월 15일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8월 15일로 변경합니다. 여로보암은 신앙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악된 행동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나님보다 자기의 악한 죄를 의지함으로 여로보암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 적용

1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요? 나의 예배 모습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9-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 4장 23절

유라혜

♩ = 110

F Gm F/A C F Gm C7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 더 육 네 마음을 지키라 -

5 F Gm F/A Dm Gm C7 F
생명의 근원이 이 예 - 서 남이 나라 -

9 F Gm F/A C F Gm C7
doo - doo -

13 F Gm F/A Dm Gm C7 F
doo - 잠언 사장이 십삼 - 절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편익과 상황에 따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최고의 기쁨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